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인의 제주도 주둔 경험*

다카무라 료헤이

1. 이 논문의 연구 영역과 연구 목적

이 논문은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군인의 제주도 주둔 경험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비록 직접적인 전장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 전쟁이 많은 영향을 당시 조선 사회에 미친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일본군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일본군이나 조선총독부의 방침과 그것이 조선사회, 조선인들에게 미친 영향이 검토되어왔다(신주백, 2003; 宮田, 1985). 제주도의 경우 1944년부터 미군 상륙에 대비한 전쟁 준비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츠키사키는 일본 방위청 자료를 이용해서 섬 전체에 일본군이 주둔하며 군사시설을 건설하였음을 밝혔다(塚崎, 2003). 이것은 그 당시 제주도 주민과 일본군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을 해명하려고 하면 일본군 상부가 만든 문서자료만을 갖고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이러한 연구 단계를 고려해서, 이 논문은 우선 제주도 주둔 경험을 가지는 일본사람에 대한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 제주도 상황을 밝히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한다.

그러나 본론에 앞서 구술 자료의 특징과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혜경은 구술 자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정

다카무라 료헤이 고베야마테대학 조교수,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79-AS0018).

혜경, 2003: 216-221). 즉, 구술성, 주관성과 개인성, 유일성, 구술자와 면담자의 공동 작업이라는 네 가지이다. 그 중 특히 구술성에 대해서는 구어(口語)로 표현되고 몸짓이나 표정 등도 자료에 포함되는 점과, 구술이 이루어진 상황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혜경은 지적한다. 그러나 구술 자료의 그러한 특징은 문헌자료도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문헌자료도 문헌을 작성하면서 내용 선택이 불가피한 것이다. 어떤 내용을 거기에 남길 것인가는 작성자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동시대 자료라고 해도 일어난 일을 모두 담아낼 수도 없고 작성자의 오해도 있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단순한 오기(誤記)도 있다. 문헌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할 때는 자료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구술자료 분석이 직면하는 문제점과 아주 유사하다(清水, 2006). 나아가 구술 자료가 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될 경우 몸짓이나 억양 등이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문헌자료도 육필이나 인쇄물이라는 측면이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일종의 ‘물질성’은 문헌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점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이번 구술자는 결코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사실 구 일본군 병사들은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다. 전장에서 돌아온 후에 쓴 회고록은 물론이고, 전장에서 기록한 일기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엽서 등은 자주 이용되는 자료이기도 하다(新井, 2001; 藤井, 2000). 이번 구술자 중 한 명은 전쟁에 대한 저서가 있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우리의 조사 협조 요청에 따라 수기를 써서 준비해주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반드시 구술 자료만이 아니라 문헌자료도 같이 이용할 것이다.

나아가 이 논문에서 중심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도 구술 자료의 구술성보다 정혜경이 꼽은 주관성과 개인성에 두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분석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분석대상이 될 만한 구술자가 두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적인 분석은 의미가 희박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질적인 분석을 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구술 자료를 자세히 소개

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구술 자료를 당시 사실에 대한 증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의 경험이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만들게 된 상황이나 개인사적인 맥락으로부터 구술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전쟁 또는 군대 생활이란 대규모적이고 집단적인 생활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경험으로 다가왔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연구에서 구술 자료의 의의를 한정시킬 생각은 없다. 정혜경도 지적하듯이 일반적으로 구술사 연구는 자료를 남기지 못한 사람들, 특히 어떤 사건이나 역사적인 상황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쓰고자 하는 것은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일본인 군인이며 오히려 지배자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큰 힘을 쓸 수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술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姜德相, 2006). 그러나 제주도 주둔 일본군인 구술조사는 장교도 아닌 일반 병사이며 결정권이 아주 한정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대상으로 한 구술자는 일반적인 구술사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는 입장의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구술사라는 조사 방법을 이제까지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인 지배 세력의 말단에 대한 연구 결과이며, 구술 조사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도 이 논문의 과제로 하겠다.

2. 조사와 대상자의 제주도 경험 개요

이 절에서는 이번 조사의 개요와 이용하는 자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대상자의 생애사를 개략적으로 저술하겠다.

I. 고바야시 시즈오(小林靜雄)에 대해서

1) 조사의 개요

고바야시는 2006년 3월 24일 면담하여 구술채록을 했다. 면담자는 필자와 공동연구원 츠키사키 마사유키(塚崎昌之)의 두 명이었고, 면담 장소는 오사카 부내 한 호텔 커피숍이었다. 이 구술 내용을 인용할 때는(고바야시 06.03.24)이라고 표기하고, 인용부분 내 다카무라와 츠키사키의 발언은 <다:...>, <츠:...>라고 표기한다. 고바야시는 『노몽한의 북두칠성(ノモンハンの北斗七星)』(有朋書院, 1999)이라는 저작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제주도 주둔 경험도 언급하고 있다.¹⁾ 이 저작도 검토대상으로 하겠다.

2) 고바야시의 제주도 경험

고바야시 시즈오는 1918년 오카야마현의 한 산골(현재 미마사카(美作)시)에서 출생했다. 심상고등소학교(尋常高等小學校) 졸업 후 오사카로 나가 작은 아버지 소개로 우체국이나 변전소에서 근무하면서 야간학교에 다녔다. 3년을 오사카에 지낸 후 도쿄로 갔다. 도쿄에서 신문배달부나 인쇄공 등을 했는데 1938년 8월 징병검사를 받고 다음 해 입대가 결정하자 귀향하였다(고바야시, 1999: 제3부).

1939년 3월 1일 오사카를 출발하여 만주 하이랄(海拉爾)에서 신병훈련(“초년병 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7월부터 이미 전투가 시작했던 노몽한으로 갔다. 9월 정전협상이 이루어지자, 10월에 하이랄로 돌아와 군무를 계속하고 1942년 귀국했다(고바야시, 1999: 제1부).

귀국 후 군수공장에서 근무했다가 1945년 3월에 다시 소집되었다. 소집부터 제주도로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이하 내용은 고바야시 06.03.24). 고바야시는 일단 일본 내지에서 소집, 편성되어 제주도 도착 후 다시 새로 부대 편성을 했다고 기억한다. 그것은 제주도로 가는 선박 내에서의 부하와 제주도에서의 부하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기억 때문이다. 선박은 규슈 기라츠(唐津)에서 출발했는데 그 수송선에는 약 1,000명 정도의 병사가 탑승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만 있고 물자는 없었다.

그는 소집 시 병장이었는데 제주도 도착 후 오장(伍長)이 되었다. 그러나 부대명, 중대장 이름, 주변 병사들 이름을 전혀 기억 못한다고 한다. 면담

1) 필자는 이 저작을 소개한 일본 신문 기사를 소개 받음으로써 고바야시를 알게 되었다.

후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소속은 보병 제294연대(제96사단 예하)이다.

제주도의 어느 항구(한림항으로 추측됨)에 도착한 후 1-2달 정도 해안가 지역(상륙 항구에서 약간 서쪽 지역이라고 기억함)에서 이동을 거듭했다. 그 때는 초등학교에서 주둔하기도 했고 또 일반 민가에서 살아본 적도 있다. 그 후 4-5월경에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 갯도진지 구축 작업을 하였다. 자세한 위치는 기억 못하고 있으나 해방 후 귀국할 때 아주 짧은 시간(약 30분이라고 기억함) 내에 항구까지 도착했으니 바다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일 것이라고 한다.

진지구축 작업에는 기계를 쓰지 않고 사람 손으로만 했다. 지역 주민의 동원은 없었고 부대원들이 자기가 들어가는 갯도를 스스로 팠다고 한다. 본인은 중대 지휘반에서 연락병을 해서 직접 갯도를 파지는 못했다. 그러나 부대에 열심히 작업을 하는 분위기는 없고 맡은 업무만 그런대로 하는 정도였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전투 훈련도 한 기억이 없다.

그가 소속한 지휘반에는 병사가 5-6명 있었는데, 그 중 2명이 조선인이었다. 일본어가 능통하였으니 징병된 사람이 아니라 지원병이었을 거라고 그는 추측한다. 그 조선인 병사들은 해방 직후 육지 고향으로 돌아갔다.

부대에는 무기가 아주 부족했다. 그러나 식량은 풍부했고 쌀이나 술도 많이 있었다. 해방 후 쌀이나 옷 등과 주변 주민이 가져오는 생선을 교환하기도 했다. 해방 후 지역 주민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으나 지역 주민 중 부대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생선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방 후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총을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바다로 던졌다. 두 개만 남긴 이유는 지역 주민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아 10월 24일(조사 후 받은 이력서에 의함) 제주도를 출발 사세보에서 제대하였다. 귀국한 후에는 오사카에서 화학공장 등을 경영해왔고 현재는 고향인 미마사카에 돌아와 살고 있다.

그의 저작인 『노몽한의 복두칠성』은 제목 그대로 노몽한 사건에 대한 기술이 대부분이다. 그는 이 책 이후에 전쟁을 소재로 한 저작을 두 권 더 냈는데 그것은 만주의 전쟁 유적과 미얀마의 일본군을 취재한 것이다.

II. 가미키 사토루(神木悟)

1) 조사 개요

가미키 사토루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8일 구술 채록을 했다. 면담자는 역시 츠카사키와 필자의 두 명이었으며, 장소는 가미키가 현재 관장을 맡고 있는 도쿠시마현 아난(阿南)시 나가이케(長生) 공민관(公民館)이다. 이 구술 내용은 (가미키, 06.04.08)이라고 표기한다. 가미키는 우리의 전화 연락에 따라 방문에 앞서 자기 경험을 수기로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는 2006년 7월 3일부터 6일까지 면담자들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자신이 주둔했던 지역을 직접 답사하였다. 답사시 나온 이야기는 답사일에 따라 (가미키 06.07.03) 등으로 표기하며, 답사 장소 등의 상황도 표기한다.

2) 가미키의 제주도 경험

가미키는 1924년 도쿠시마현에서 출생하였다.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졸업 후 농업기술자로 교육을 받아 현 직원으로 고향에서 근무한 후 1944년 입대하였다. 부대는 제111사단 보병 제244연대였고, 제주도에 오기 전에는 만주국 동만총성 수양현 이도구(滿洲國東滿總省綏陽縣二道溝)에서 주둔하였다. 거기서는 조선인도 한반도에서 징집되었고 같이 훈련을 받았다. 중대원 약 180명 중 조선인은 15-6명 정도였다고 한다. 다 일본어에 능통했다고 한다. 그들은 해방이 되자 일본인 병사보다 먼저 부대에서 집으로 보냈다고 한다.

1945년 3월 20일경 부대에 동원령이 내려와 목포를 경유해서 4월 12일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목적지는 오키나와라고 들었는데 도착해봤더니 제주도였다고 그는 회상한다. 상륙은 산지향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현재 제주국 제공항인 제주 서비행장을 우회하면서 서쪽으로 행군했다고 그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중산간 지역에서 일주일 정도 주둔한 후 한라산 중턱 해발 1200m 정도에 위치하는 노로 오름 주변에서 진지구축을 했으나 5월 하순 내지 6월 초에 하산하여 “주지동(朱池洞)”(현재 조수2리 굽은오름)에서 갭도 구축 작업을 하였다. 군기를 모셔 한라산에서 내린 가미키 소속 소대와는 달리, 중대 본부대는 길을 잃어 하루 늦게 숙영지로 도착하였다. 그의

소속은 제3중대였으며 중대 지휘반에서 연락병으로 근무하였다. 그들이 관개도는 중대본부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개도를 관통시키기만 해서 거실을 만들기 전에 중단되어 진지를 완성시키지는 못했다.

패전은 8월 17일 알게 되었다. 그 날은 중대가 창설된 날이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중대 깃발을 모시는 “군기제(軍旗祭)”가 있는 날이었는데 그 군기제 자리에서 중대장이 패전을 부대원들에게 알려줬다. 그 후 반납한 무기를 같은 해 10월쯤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라고 해서 다시 돌려받아 15명의 대원을 확보했다는 일도 있었으나, 가미키 본인은 결국 거기에 참가하지 않았다. 10월 28일 제주항을 출항하여 10월 30일 규슈에 상륙 귀가하였다. 귀국한 후에는 역시 고향에서 농업지도원으로 근무하고 현재는 지역의 공민관 관장을 맡고 있다.

가미키는 만주에서 입대한 후 매일 일기를 썼으나, 그런 종류의 기록물은 귀국 시 연합군의 소지품 검사에 걸린다는 소문을 들어 다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지명이나 위치 등을 매일 중대장에게 확인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는 날짜나 장소를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III. 나카하라 유이치 (中原雄一)의 사례

이 논문에서는 위 두 개의 구술 자료 외에 더 하나의 문헌 자료로 일본 군인으로 제주도에 주둔한 경험을 쓴 中原雄一, 『鴨綠江に題す』 (1969年) 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일제시대 신의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나카하라 유이치(中原雄一)의 저작이며 원래 1968년 3월부터 구마모토현 퇴직 경찰관 모임의 기관지 『あけぼの』 에 연재된 글을 모은 단행본이다. 여기에서도 전쟁 말기 제주도 주둔 상황에 대해 언급이 있고 그 외 경찰관으로서의 근무 상황 등 자기 생활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나카하라는 1932년부터 평안북도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국경 경비를 하면서 “선비(鮮匪)”즉 만주에서 습격해오는 조선인 무장 부대와와의 교전도 경험했다. 또 그는 조선어도 ‘조선어 으뜸’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능통한 사람이었다.

1945년 7월 25일 소집되어 평양 44부대에서 편성되었다. 여수를 거쳐 28시간 후 제주도에 도착하여 한라산 서쪽 기슭을 목표로 행군했다. 소속은 분진포 부대였다. 소나무 밭 속에서 주둔하면서 훈련을 받았다.

8월 15일 종전 후 대대본부 지휘반에 배치되어 대대장으로부터 조선인들의 동향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 내에 거주하는 자는 9월 1일 소집 해제되어 그는 육지로 돌아가 10월 중순 귀국하였다. 귀국 후 경력은 확실하지 않다.

저서를 보니 나카하라의 고바야시나 가미키와 비교하면 식민 지배나 전쟁에 대해서 정반대의 평가를 가지고 있다. 고바야시는 자기 저서에서 만주국의 최대 피해자는 “만주 사람들(중국인)”이라고 쓰고(고바야시, 1999: 286), 구술 조사에서도 자기 동생이 중국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변두리까지 가서 왜 일본이 전쟁을 해야 하나”고 지적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도 통일에 일본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전쟁 책임을 일본 자신이 해결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고바야시, 06.03.28). 가미키 역시 면담 당시 “한 번 제주도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을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가미키, 06.04.08). 그것은 그 부대가 오름에 갱도를 뚫으니 그것 때문에 오름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를 걱정하는 소리였고 실제로 2006년 7월 제주도 방문시 도착하자마자 마중 나온 한국 측 연구원에게 “여기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한편 나카하라의 수기는 “대동아전쟁 전력 증강에 조선 13도의 공적(功績)은 인적 물적으로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추진한 자는 누구인가. 즉 조선 3000만 민중의 총력이며 총력 결집 추진력이 되는 것은 당시 재직했던 관공서 직원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中原, 1969: 130) 식민지 지배의 논리를 내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1960년대와 2000년대라는 시대적인 것일 수도 있고, 퇴직경찰관 모임 기관지 연재물과 제주도 경험을 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서 시작한 인터뷰라는 상황 차이일 수도 있다. 또한 경찰관이란 직접적인 지배 권력 말단에 있던 나카하라와 지방에서 태어나 노동자나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고바야시, 가미키와의 차이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자기 경험담을

말하는데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도 보고자 한다.

3. 제주도 주둔 경험의 의미

I. 제주도 주둔 부대의 장비 부족

이 절에서는 이상의 자료를 통해 그들에게 제주도 주둔이란 일이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제주도 주둔 부대의 장비 부족과 나이는 많고 훈련도 부족한 부대원들이다. 가미키의 경우 소속 부대는 완전 무장이 가능했으나 제주도에서 만난 타부대원을 보고 장비와 훈련 부족을 지적한다. 가미키의 부대는 만주에서 온 정예부대였는데 그가 만난 부대나 고비야시의 부대는 내지에서 편성된 현역이 아니라 소집병 또는 징병 검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병사들로 구성된 부대였다²⁾. 그러한 부대 성격 차이가 거기에 나타난 것이다.

영문을 출발, 나팔 소리가 높이 울려 걸음도 가벼웠으나 대검(帶劍)만 하고 총을 소지하지 않는 병대(兵隊) 행진은 아무리 봐도 위풍당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中原, 1969: 224).

응소(應召)한 <1945년> 7월까지 일지사변(중일전쟁)이 발발한 소화(12년 <1937년> 7월 7일 이래 매월 국방헌금을 계속해 왔는데 제주도 수비대에는 완전 무장은 없고 단검만이었던다는 사실은 무슨 일인가(中原, 1969: 227, <>내는 필자의 주기임.).

<제주도로 상륙한 지 한 두 달 정도 지난 후 공습을 피해서 산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미군이> 상륙해오면 공격할 거니까, 밀

2) 구 일본군에서는 현역으로 징병하는 것을 “징집”, 퇴역한 예비 군인을 다시 징병하는 것을 “소집”이라고 했다. 따라서 징집병은 소집병보다 군인으로써 우수하다고 인식되었다.

에 있으면 완전히 당할 것이다. 어쨌든 무기가 없었다. <생략> (다: 어떤 무기가 있었나.) 소총정도였다. (다: 소총) 기관총도 있었나? 나는 원래가 기관총 중대였는데 지휘반이라 기관총은 없었지만 몇 개는 있었나? 자세히는 잘<모르겠다>. (다: 총 조작한 기억은 없나?) 없다. 소총 정도였다.<생략>

<식량은 비교적 풍부했다는 이야기에 이어> (츠: 결국 무기가 없었던 것인가.) 그렇다. 무기는 없었다, 그건. 그쪽 <만주>에서 이동하는 단계부터 별로 갖고 오지 못했다. 만주에서 온 것도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가능할 정도의 무기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만은 많이, 삼개 사단이나 있었지만(고바야시, 06.03.28).

(츠: 111사단이 제주도에 있던 부대 중에서는 정예부대, 제일 강한 부대라고 한다. 그 외 96사단이나 108여단 등은 나이 든 부대, 거의 일본에서 종전 직전에 소집된 제1을중, 제2을중 정도의...) 봤다, 그 부대를. (츠: 봤나? 너무 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 장비가 다르다. (다: 장비가 달랐다.) 그렇다. (츠: 역시 111<사단>이 제일?) 111사단이란 그것은 전국에서 알려진 사단이니까.....내가 <외출해서> 걸어갔더니 <어떤 병사들이> 단체로 누워서 쉬고 있었다. 한 번 봐서 “아니 이런” 생각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했다. 그랬더니 오사카에서 왔다고 한다. 그걸 듣고 이제 전쟁에 졌다고 생각해서 웃음이 나왔는데, 뭐라고 할까, 쓸모가 없다고 할까, 나이든 소집병뿐이었다.(다: 우선 나이가 많다.) <생략> 물통은 다 대나무였다. <생략> 탄약낭(彈藥囊) 드는 사람은 없었다. 대검(帶劍)이라도 했으면 좋은 편이었다. 그 검 좀 보자고 했는데 봤더니 그냥 철판을 검 모양으로 잘라낸 것을 검게 칠하기만 한 것이었다. <생략> 그리고 5명 중 한 명 정도, 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총을 들고 있었다. <생략> 난 외출 시라서 물통이나 배낭 등 완전 무장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쪽 병사들이> “당신 어디서 왔어”하니까 “만주에서”라고 했더니 “야 이걸 믿음직스럽다. 여기 있어서 우린 다행이다. 만주 관동군 정예부대가 와 있으니”라고 그랬다.(다: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아주 칭찬 받았다. 여기서 칭찬 받아봤자, 생각했지만(가미키, 06.04.08).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전쟁에 질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바야시 역시 부대에 이제부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전쟁을 거의 포기한 분위기이다.

몇 명 내 밑에 있었다. 아직 <군대 오는 것이> 처음인 사람이 많이 있었다. 소집된 사람이다.(다: 처음으로?) 그렇다, 아직 한 번도 군대 가보지 못한 사람도, 40 넘어서도(츠: 제2 을중 정도) 맞다. 동경대 나온 사람도 있고 <생략> “중일신문” 기자라던가. 다 굉장한 지식계급인 사람이 많았다, 내 밑에는. <생략> 그 애들 제일 <인상 깊었다>. 전쟁은 이제 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 헌병에게 걸리면 잡히겠다고 그래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다.<생략>³⁾

(다: 중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없나?) 그건, 소집된 사람이다.(츠: 나이가 좀 많나?) 아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나보다 조금 많았다. 난 26<세>이었으니까 30<세> 조금 넘을 정도인가. 30 정도 (다: 예전에 어디에 있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 우리는 묻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했다. 아무튼, 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업무 외, 명령 받은 일 외에는, 되도록 <이야기하지 않았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었다>.

(츠: 전차는 못 봤나?) 못 봤네, 난 아무튼 난 관심이 없었다<웃음>. 전쟁에는.(다: 어떻게 되거나, 빨리 끝나면 했나?) 그래, 그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었고.(다: 빨리 가고 싶다고?) 하여튼 전쟁은 싫다고 생각했다.

꽤 느긋하게 지냈다.(다: 느긋하게?) 정말로 생각해 보자. 지역사람들과 술 먹고 놀기도 한 것이다. 그 정도로 그 때는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내 생각이라서 다들 어땠는지 모르지만, <생략>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체관(諦觀)의 경지라고 할까.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쉽게 생각하자, 그런 마음은 다 있었다. (고바야시 06.03.24)

3) “동경대”는 일본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명문대학이며 당시는 제국대학이었다. “중일신문”은 나고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신문사이기는 하나 이것 역시 일본 전국으로 잘 알려진 전통 있는 신문사이다.

노몽헌에서 싸운 경험이 있는 고바야시로서는 제주도에서 구축한 진지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도 전쟁의 앞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 그는 만주에서 만든 요새와 비교해서 제주도에서 만든 것은 실용적이지 못한 “위안(氣休め)”이라고 표현했다(고바야시, 06.03.28). 카미키도 갯도를 관통시킨 후에는 시원한 갯도 속에서 작업을 안 하고 누워서 쉬곤 했다고 한다(카미키, 06.07.06). 부실한 무장과 나이든 병사들은 일본 군인들에게도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다만 그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고바야시는 군사훈련은 받아 본 적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카하라는 상관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대전차 포가 도착할 것이라고 들으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고(中原, 1969: 225), 가미키 역시 중대 중 구성 소대 중에서 떨어져 배치되었던 제2소대를 공격하는 연습(제2소대로서는 수비 연습)을 했다고 한다(고바야시, 06.07.05 이 이야기는 제2소대 주둔지를 찾아다니면서 상기된 것이다). 제주도 주둔 군이라고 해도 부대마다 장비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II. 조선인과의 관계

고바야시, 가미키 두 사람 모두 조선인과의 관계는 양호했다고 한다. 그들이 관계를 갖게 된 조선인은 부대 내에 있던 군인과 제주도 지역 주민의 두 가지인데 우선 부대 내의 조선인과의 관계를 보자.

고바야시가 소속한 중대 지휘반에는 6-7 명의 부대원이 있었는데, 그 중 2명이 조선인이었다. 그들은 “머리도 좋고 반장인 나를 많이 도와줬다”(고바야시, 1999: 247)고 한다. 가미키 역시 같은 부대원인 조선인 병사와의 관계는 양호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말하는 해방을 맞아 조선인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아주 유사하다.

중대장에게 “총알은 앞에서만 날아온다는 법이 없다. 후방도 조심하라. 조선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반의 두 명 조선병과는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다. <생략> 조선병 두 명은 “고마웠습니다(お世話になりました)”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고향인 부산으로 가겠다고 산을 내려갔다(고바야시, 1999: 248).

<조선인 병사들이 귀향할 때> 내가 말했다. “너 뭐야 이번엔 너희가 이긴 나라고 우리는 진 나라, 어쩌면 너희와 서로 총을 쏘아야 될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그 조선인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라고 <했다>. “여기서 신세진 것은 기뻐다. 좋았다.”고 해서 돌아갔다. 그 때는 뭐, 적이다, 졌다 이겼다고 하는 일은 없었다(가미키, 06.04.08).

종전 후 일본군은 조선인과 조선 거주 일본인 병사를 먼저 소집 해제시키고 집으로 보냈다(米良, 1995;森田, 1980:86-69). 나카하라의 부대에서는 조선 거주 병은 9월1일 제대하였다(中原, 1969: 227). 고바야시, 가미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선인 병사가 부대에서 나갈 때 이별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전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저술 내지 구술 자체에서도 당시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어려운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우선 가미키는 본인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해서 “이긴 나라”와 “진 나라”로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이 일본과 다른 나라라는 감각이 일반 병사 사이에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

고바야시의 저술 안에 나타난 중대장 말도 중요하다. 중대장은 조선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카하라의 글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온다. 앞에도 소개했듯이 대대장으로부터 조선인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바야시의 중대장, 나카하라의 대대장 등 사관들은 조선인 병사들을 믿지 못한 것이다.

나카하라는 조선어에 능통하니 군복을 벗고 평복으로 다니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다. 결국 스파이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해 나카하라는 “그날부터 특무와 같은 일이 계속되어 새삼 책임이 큼을 실감하였다. <생략> 조선어 을종 시험 합격이 다행이었다”고 기술한다(中原, 1969: 226). 즉 1969년 당시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나카하라는 부대에 있던 조선인 병사에 대해서는 소집시 “특이한 존재로 반도인 지원병 몇

명이 보였다”고 하는 뿐 제대시에 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쓰지 않는다(中原, 1969: 224)⁴⁾.

조선인 병사들의 다른 모습을 나타낸 이야기도 있다. 가미키가 소속한 제3중대가 “주지동”에서 갱도 작업을 하는 시기에 그 근처에 주둔했던 제2중대는 “도망중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탈영(“도망(逃亡)”)이 계속 이어진 부대였다. 그 중대에서는 세 번 정도 “도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다 조선인이었다.

“도망중대”라고 <제2중대는 불렀다>. 세 번 정도 <병사가> 탈영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탈영한 놈은 다 조선인이었다. <생략>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들 작업을 중단해서 그래서, 뭐야, 반합(飯合) 달고 다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 “야, 오늘은 뭐야”고 했더니 “이야, 도망, 도망!”하는 것이다(웃음)(가미키, 06.04.08).

탈영병은 대대본부에 설치된 중영창에 며칠 간헐하다가 다시 원부대로 복귀해서 작업했다. 군법 회의까지 열리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비교적 처벌이 가벼웠던 이유를 가미키는 “야전이라서” 그랬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탈영병이 모두 조선인이었다는 점은 역시 조선인 병사 중에는 적응이 어려운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준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바야시, 가미키 두 사람의 회상은 아주 유사하다. 고바야시는 산에 주둔한 당시 두 번 정도 마을 사람들의 잔치에 부대원들을 데리고 놀러간 적이 두세 번 있었다고 한다. 부대에 있던 젊은 군인이 어디서 잔치 정보를 얻어와 가게 된 것이다.

부대원인 젊은 놈이 “봉오도리(盆踊り)”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가자고 해서 보러 가곤 했다. <갔더니> 춤추라, 반장님도 춤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추기도 했다. 그런 즐거운 일도 있었다(고바야시 06.03.28).⁵⁾

4) 그는 그 저작 중에서 “반도인”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다. 그의 저술은 식민지 시대 일본인이 쓴 글과 차이를 찾기 힘들다.

한편 가미키는 매일 밤 해안가에 배치된 제2소대에게 연락을 하러 다녔다. 그 길가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주민과 친분을 갖게 되어 매일 귀대하는 도중 그 동네에 들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 계기는 어느 날 마을에서 보리를 수매하던 중 그가 들러서 그 보리 등급을 다 맞춰줬다는 일이었다. 그리고 마을 주민 중에 가미키의 고향 근처에 돈벌이로 간 사람이 있었다고도 한다. 당시 도쿠시마(徳島) 지방에서는 금속 제품을 수거하여 엮고 바꾸는 장사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제주도에서 그 일을 하러 갔던 것이다. 그날 이후 매일 연락 가다가 오는 길에 그 마을에 들르게 되었다. 그 때도 농업기술자 경험 때문에 농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많이 나눴으며 음식물도 받아 부대에서 나눠 먹었다고 한다. 가미키는 매일 밤길을 잃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늦게 귀대하였다. 중대장은 다른 사람에게도 연락 업무를 시키려고 했으나 가미키는 길이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만이 다녔다(가미키, 06.04.08). 사실 그 중대는 “처벌 중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 중대장이 군기(軍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의 접촉 특히 물건이나 식량을 받은 것은 위반행위였는데, 가미키는 계란을 중대장에게도 주면서 그 일을 계속했다.

그렇게 해서 도민과 관계가 생겼다. 그리고 <주민이> 고구마로 만든 떡을 주거나 삶은 계란을 만들어서 “군인 아저씨 드세요”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밤늦게까지는 있지 못해, 다 두낭(頭囊)에 담아서 “고맙다. 전우들이 기다리니까 간다”고 하면서 돌아갔다. 지휘반에서는 따로 일반병만 집을 짓고 살았다. 거기서 “돌아왔어”하면 맛이 있는 걸 가져온다고 다들 좋아하는 것이다(웃음). 그래서 짐을 다 풀고 계란이든 뭐든 다 놓고 난 후에 “중대장님 돌아왔습니다”고 했다(웃음).

“대장님, 계란 받았습시다”, “준 것은 아까우니까 대장님에게 갖다드리는

5) “봉오도리(盆踊り)”는 원래 일본에서 8월 15일 전후하여 저녁에 춤을 추고 노는 풍습을 말한다. 여기서는 여름에 동네에서 잔치를 해서 노는 것을 일본인 부대원이 봉오도리라고 표현한 것이다.

겁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돼. 그런 건 먹으면 안 된다” “아니 그래도 아까워”라고 했다. 놔두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하지만 중대장님께 드려야지 생각해 일부러 가져온 것인데요. 깨질까 봐 신경 많이 쓰면서 가져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하나만 먹어볼까” 라고 그랬다. <생략> 그리고 나서 바로 부대원들 앞에 가서 “야, 중대장님 계란 드셨어. 어서 다 먹어.” (웃음)라고 한 것이다(가미키, 06.04.08).

이상과 같이 제주도 주둔 부대와 지역 주민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제주도 주민들과 인터뷰에서도 나타난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주도에서 일제 말기에 무엇보다 힘든 일로 꼽히는 물자공출이나 근로동원은 군부대 명령으로 하지 않고 읍면-리라는 행정 기관을 이용하면서 행해진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선에서 일본군이 지행한 현지에서의 “징발”과 달리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조선에서는 군이 직접 물자 공출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일본군 주둔 초기에는 주민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미군이 상륙한 후에는 일본어가 서투른 주민을 간첩 취급을 하거나 사살하게 되었다(林, 2001: 특히 35-41). 지금도 제주도 주둔 군인과 주민 사이에 비교적 좋은 기억이 남아 있는 이유는 제주도에선 결국 직접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우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해방-종전을 계기로 변화가 일어났다. 고바야시 부대는 전쟁이 끝난 후 주둔지에서 나가지 않고 지냈다. 이것은 지역 주민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실제로는 전혀 접촉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식량을 지역주민과 교환 또는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심각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가미키 부대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술을 먹고 노는 것이 두려워서였다. 해방이 되자 주변에서 잔치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걱정한 것 같다.

밑에는 내려가지 못했다. 밑에 내려가면 아무래도 뭐<주민>하고 접촉하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자주 와줬다. <찾아온 사람은> 친하게 된 사람,

한국 분. 그래서 의류라든가 셔츠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주고 생선과 교환 했다.(츠: 식량과는 교환 안 했나? 쌀이라든가.) 쌀도 줬다(고바야시 06.03.28).

지역 주민이 소주를 먹고 바닥을 툭툭 소리 나게 딛는다. 아주 요란했다. 그 때 군인들은 다 비무장 상태라 어찌면 당할까 했다. 그렇게 되니까 모두 다 목도를 만들어야 했다.(다: 나무로?) 그래서 군인들은 다 목도를 걸고 다녔다. 얼마 동안은. 명령이 와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지만 (가미키, 06.04.08).

그러나 위에 소개한 고바야시의 구술에도 보이듯이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비공식적으로 계속되었다. 가미키 역시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게 된 마을 주민과는 양호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마지막 연락 업무 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할 수 있었고 대표자가 딸과 함께 주둔지 가까이까지 내려다준 것이다(가미키, 06.04.08).

한편 제2절에서도 봤듯이 45년 10월경에는 미군의 지시로 일본인 군인이 다시 무장해서 치안유지부대로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 부대와의 직접적인 갈등이나 분쟁은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일본군의 존재가 당시 및 그 후에 제주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III. 종전 경험

마지막으로 일본인 군인에게 ‘종전’은 어떻게 다가왔는가를 가미키의 사례를 보면서 생각하고자 한다. 나카하라의 저작에서 종전은 제주도 주둔 경험과 관련해서는 조선인 동향 조사라는 임무를 맡게 된 계기로만 그려져 있다(中原, 1969: 226). 고바야시의 저서에서는 특별한 감회가 없이 “산중에서 참호(塹壕)를 파는 사이에 8월 15일의 종전이 되었다”(小林, 1999: 248)고만 언급된다. 구술에서도 특별히 언급이 없고 심지어는 한라산으로 부대원 몇 명과 같이 놀러간 것이 8월15일보다 앞에 있던 일인지 뒤였는지

조차 기억 못하고 있다(고바야시, 06.03.28). 그러나 가미키는 종전에 관해 상세한 기억을 말해줬다. 가미키는 8월 15일에는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고 다만 미군 비행기의 모습이 안 보인 것과 그날 밤부터는 군가를 부르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만이 평소와 달랐다고 한다. 8월 17일 중대 군기제가 열렸는데, 거기서 중대장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밝혀줬다(가미키, 06.07.06, 한라일보사에서의 인터뷰 당시 발언).

(츠: 이런 질문은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떻게 느꼈나?) 기억이 없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전쟁에 졌다, 전쟁은 끝났다, 그렇게만 느꼈다. 어제까지 총알이 날아올 생각만 해도 숨으라고 했던 중대장이 왜 눈물 흘리느냐고 생각했다. <생략> 군기제 때는 완전군장과 착용하여 받들어총의 자세를 해야 한다고 정해졌다. 그런데 그 날 군기제는 도수(徒手) 대검, 즉 검만 들고 오라는 지시가 왔다. “왜 그러냐”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연대본부까지 가서 연대본부에서 군기를 모셔 중대로 돌아왔다. 돌아왔더니 중대장이 “너희들에게...”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생략> 중대장이 처음에는 또박또박 말했는데 나중에 “분하다” “억울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뭐야, 전쟁은 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그런 마음 밖에 없었다, 실제로는. (다: 주변에서 눈물 흘리는 병사는 없었나?) 없었다. (츠: 중대장도 포함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중대장뿐이었다.(가미키, 06.04.08)

가미키와 주변의 일반 병사들은 전쟁에 졌다고 해도 별다른 감회가 없었다고 한다. 그 반응은 고바야시의 반응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가미키의 중대장에 관한 기억에는 이유가 있다.

가미키 부대는 오키나와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 6월 어느 날 밤에 함포 사격이 있다는 정보가 와 진지 주변에 판 개인용 호 안에서 하룻밤 총을 잡고 대기한 적이 있다. 만주 이래 실제 전투는 아직 없어 불안해하였으나 결국 그 날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때 가미키는 “중대장 직속 사격병”이

였다. 즉 중대장을 지키기 위해 적을 사격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그래서 중대장의 개인 호 바로 옆에 들어갔다. 중대장은 검을 들고 하루를 지냈고 그 후 며칠 동안 열을 냈다고 한다. 그래서 대대본부에 갔을 때 간부들에게 너희 중대장의 “전쟁 공포증”은 나왔냐는 놀림도 당했다(가미키, 06.04.08). 그런 중대장이 전쟁에 졌다고 눈물을 흘리니 부대원들의 반응은 싱거운 것이었다. 중대장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미키 중대로 부임한 사람이었다. 고바야시의 경우는 조선인 병사에 대한 생각에서 중대장과의 차이를 말해줬는데 가미키의 경우는 종전을 알게 된 기억이 중대장과 일반 병사와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4. 고찰과 차후의 과제

I. 경험과 인식의 다양성과 그 배경

이상 세 사람의 구술 자료 및 문헌 자료를 통해서 제주도 주둔 일본 군인의 경험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러한 자료들을 개개인의 경험이나 인식 차이에 주목해서 볼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본군 내에서도 존재하는 주변 상황에 관한 인식 차이이다. 고바야시의 경우 중대장과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여, 가미키의 경우 종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의 경우 중대장과 같은 간부급 사람들과 일반 병사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카하라의 경우는 일반 병사더라도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대대장과 같이 함으로써 명령받은 업무를 보람 있게 느낀 것이 특징적이다. 그것은 국경의 경찰관이라는 군인과 비슷한 직업을 가진 것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상황 아래서도 개인사적인 맥락을 달리함으로써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인식의 차이인데, 경험 자체가 상이할 수도 있다. 역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주둔한 일본 군인에게 구술 조사를 실시한 마에카와도 일본군 병사들은 그 부대의 전체 행동을 알 수 없다

는 이야기 들을 수 있다고 한다(前川, 2006: 12). 즉 구술은 그 사람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만 그 바로 옆에도 다른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술사 일반에 적용할 수도 있으나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에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기에, 특히 전쟁의 역사를 조사할 때에는 개인 경험을 그 지역이나 부대 전체의 동향과 직접 연결시키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 점 하나로서, 일본군에 있어서는 중대라는 단위가 개개인의 경험이 생기는 상황 만들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전쟁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고바야시와 달리, 가미키는 매일 기록을 남길 정도로 주변 상황에도 관심이 큰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 위치나 지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를 들고 다니는 중대장에게 찾아가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러한 가미키마저도 다른 중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도망 중대”인 제2중대는 가미키가 소속한 제3중대 주둔지 바로 옆에 잘 보이는 오름에 주둔했었기에 그 동향을 알 수 있었는데 제1중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을 명령을 주고받는 수직 관계만 있지 부대간의 수평 관계는 없었다고 한다(가미키, 06.04.08). 따라서 같은 대대에 있으면서도 다른 중대 일은 모르게 되기 마련이다. 한편 가미키는 중대를 “한 가족과 같은 것”(가미키, 06.04.08)이라고 한다. 일본군 조직에 있어서의 중대라는 단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망중대” “처벌중대”라는 별명도 중대가 하나의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군 조직 내에서 자리 잡았다는 예이다.

II. 구술 자료와 문헌자료의 차이점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구술 자료와 문헌 자료를 같이 이용함으로써 보게 된 구술조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바야시의 저서는 제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노몽한 사건을 중심으로 저술한 것이다. 노몽한 사건이란 1939년 여름 당시 “만주국”과 몽고인민공

화국 사이의 국경을 둘러싼 전투이며, 실질적으로는 만주국 측의 일본(관동)군과 몽고 측의 소련군이 주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소, 일 양국에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일본 국내에서는 많은 체험기가 발간되었다. 고바야시의 저서도 이러한 체험기 중 하나인데, 전체 분량 약 290장 중 제주도 주둔 경험에 관한 부분은 5장에 불과하다(小林 1999: 100, 126, 247-249). 뿐만 아니라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몽한 시기에 경험은 “제1부”로 정리되어 있는 반면, 제주도 경험은 제2부의 전우와의 대담과 제4부의 인생 이야기 중에서 다뤄진다. 즉, 제주도에서의 경험은 노몽한과 같은 “전장”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인생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나카하라의 저서도 비슷한 면이 있다. 이것 역시 제목에 “압록강”이 들어있듯이, 저술의 중심 내용은 당시 식민지 조선과 중국 또는 만주국 사이의 국경경비 경험에 있다. 230 쪽을 넘는 이 저서 중 제주도 경험은 고작 5장에 불과하다.

고바야시와 나카하라의 저술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극히 낮다. 이것은 제주도에서는 결국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⁶⁾. 일반적으로 전쟁 체험기는 혹독한 전투나 긴박한 상황에 대해 쓰이기 마련이다. 일본 니이가타현 어느 마을에서 편집된 전쟁 체험집에도 후방부대나 치중(輜重)부대의 경험담 등 전투 장면이 없는 경우 기술 자체가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野上元, 2006: 234). 따라서 종전 직전에 진지 구축을 시작하여 그것이 종전으로 중단된 제주도의 경험은 전쟁 체험으로서의 쓸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투가 없었다고 해서 그 역사적인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것을 통해서 전쟁 말기에 일본 군부의 생각이나 행동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쟁 체험으로서의 어정쩡하다

6) 이것은 츠카사키 마사유키의 지적에 의한 것이다.

는 이유 때문에 실제 경험기는 많지 않고 저술이 있어도 아주 간략화 되어 있는 것이다.

정혜경은 구술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꼽는다. 즉 기록을 남기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문헌자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 문헌자료를 대신하기가 가능한 것, 문헌자료 분석과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다(정혜경, 2003: 208-9). 여기서 정혜경이 염두에 두고 있는 구술자는 강제연행 피해자이며 여기서는 약한 입장에서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못한 자가 역사를 말하는 방법으로써, 그리고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역사로 남기는 방법으로써 구술사가 생각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제주도의 사례는 글을 쓰지 못한 자의 역사도 아니고 그리 극단적인 상황도 아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사례가 가르쳐주는 것은 문헌자료에 남겨지지 않는 상황은 보다 다양하다는 점이다. 즉, 그리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기록이 적은 상황도 있고 이러한 경우 구술 조사가 유효하다는 것을 이러한 사례는 보여준다. 관심을 끌지 못해 저술,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 주제가 아직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구술 조사가 효과적일 수 있는 영역은 보다 넓은 것이다.

참고 문헌

- 姜德相(2006), 「인터뷰와 아카이브 문제」 『歴史學研究』 813. pp.1~7.
- 小林靜雄(1999), 『ノモンハンの北斗七星』, 有朋書院.
- 中原雄一(1969), 『鴨綠江に題す』, 출판사 없음.
- 野上元(2006), 『戦争経験の社會學』, 弘文堂.
- 前川佳遠理(2006), 「オーラル・ヒストリーの實踐」 『歴史學研究』 813. pp.8~16
- 米良忠臣(1995), 「戦いの傷あと」 『教師たちの戦争体験記(戦後50年記念文集)』, 退教協兒湯支部.

- 森田秀夫(1980), 『朝鮮渡航と引揚の記録』, 출판사 없음.
- 宮田節子(1985),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來社.
- 清水透(2006), 「フィールドワークと歴史學」 『歴史學研究』 811. pp.11~19
- 신주백(2003),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준비」 『역사와 현실』 제49호 별책. pp.181~210
- 新井勝紘(2001), 「戦場にいた兵士のまなざし—描かれた非日常のなかの日常」 『民衆史研究』 62. pp.3~14
- 정혜경(2003),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 경인문화사.
- 塚崎昌之(2003), 「濟州島における日本軍の『本土決戦』準備」 『靑丘學術論叢』 제22집. pp.263~311
- 林博史(2001), 『沖繩戦と民衆』, 大月書店.
- 藤井忠俊(2000), 『兵たちの戦争：手紙・日記・体験記を読み解く』, 朝日新聞社.

주요어

구술사, 중대, 경험, 집단적 행동



Japanese Soldiers in Jeju Island at the End of World War II

TAKAMURA Ryohei (Kobe Yamate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experiences of the Japanese soldiers who stayed in Jejudo during the end of the Pacific War. Three former Japanese soldiers – Kobayashi, Kamiki, Nakahara – are my considerations.

I did oral testimonies for Kobayashi and Kamiki, and I used Nakahara's writings. I also used oral history and literature as the documents which were recorded the experiences of the individual in this paper.

Among their experiences, I am especially concerned about how three experiences – military equipment and tendency of the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Koreans, the end of a war – were appeared to them. It is said that the soldiers of the unit which Kobayashi belonged to were old and they were not well in training. But, the units which Kamiki and Kobayashi belonged to were in field training. Kobayashi and Kamiki said that the Korean soldiers in their units were good relationship with villagers in Jejudo, but, Nakahara wrote in his book that it was worthwhile to surveil the activities of the villagers after the end of a war.

Their experiences are different each. It needs that we consider the variety of the experiences even under the situation which are demanded collective behavior like war. But, this paper argues that in case of the Japanese Army, the unit of the company is important.

The experience of the ordinary soldier was limited within the company, and it was the unit that recognized the personality which the company was attached the nickname.

And, one thing that I want to argu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bjects in this paper and until now, there are a lot of oral history in this field. Jeju was not in such extreme situation because there was not actual battle during the Pacific War.

Former Japanese soldiers have written a lot of their experiences let alone the common subjects for the oral history. But, since Jeju did not become the battlefield, their experiences in Jeju during the war were remarked in very short in Kobayashi and Nakahara's writings. We can find that the oral history is usefulness to review the experiences of the individuals not only under the extreme situation or experiences but also dubious situation or position.

Key Words

oral history, company, collective behavior, experience